



정교회주보

제2531호
2025년 6월 29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3주일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제2조 • 조과 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81
 - 사도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고린토 후 11,21-12,9 · 175
 - 복음경 : 마태오 16,13~19 · 176
 - 영성체성혈송 177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진 설명

설교단(암본)

설교단(사진)은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특별하게 구분된 높은 강단이다. 4세기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작은 언덕에 오르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던 산상 설교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설교단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복음을 전하는 이는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마르코 16,6 참조)를 상징한다.

처음에는 설교단의 위치가 성당 중앙에 있었으나 나중에 본당 북쪽 부분에 자리하게 되었다. 설교단은 대리석이나 나무로 제작하며, 주로 복음 저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의 받침대 위에 거룩한 복음서를 올려놓는다.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성찬예배를 거행하고 설교하는 것이 사목자의 첫 번째이자 주된 성무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제단과 본당의 설교단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신앙의 눈

황경수 스테파노스 신부

하루하루의 일상 속의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밤을 보내게 된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이 시절을 인생(人生)이라고 한다. 각자의 인생 노트에 적어 내려가는 시간들...

‘인생, 사람이 살아온 삶’이라는 질문에 우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도대체, 내가 살아온 삶은 무엇이고, 또 살아갈 삶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 질문이 가깝게 찾아오지 않지만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면, 또는 한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경험하는 인생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각자만의 질문에 빠지게 된다.

우리 교우분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예외 없이 찾아들었고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찾아올 것임을 예측할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이라는 질문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역을 찾아보고 역술인들을 만나보기도 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성령의 깊은 은총 속에 내리지 않은 교우분 중에는 지금도 세상의 한정된 지식을 통해 당장의 질문과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느 역술인이 자신의 철학원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 신자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 이야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 역술인이 그리스도 신앙인으로 삶의 전환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이니...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고백과 전승을 담은 성서 속에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과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생생한 기록물이다. 전반부는 주로 성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중반부에는 성 바울로 사도의 선교와 사목의

행적들이 담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증거를 통해 살아계신 하느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해주고 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공동체 기도와 개인기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성찬 예배를 통해 ‘우리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신앙의 신비로 체험하며 고백하는 은총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 대목에서 어떤 교우분들이나 예비신자 교우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을 느낄 수 없고 공동체 기도와 성찬예배에 참여해도 뭔가 가슴에 타오르는 성령의 기운이 와닿지 않는데...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우분들에게 성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거울로 자신의 영적인 영혼을 비추어’ 보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하고자 한다.

예수님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신적인 능력을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리 믿음이 없느냐?”하고 말씀하신다(마르코 4,40 참조). 우리 각자의 신앙은 기도와 공동체 예배, 교회 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 이 과정을 통해 ‘신앙의 신비’, 곧 성령의 은총과 인도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우리 각자의 영안(靈眼)이 뜨였을 때,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내 기도의 매듭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지금 내가 그 신앙고백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각자의 기도의 끈을 통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께 갈 수 없다.”(요한 14,6)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요
한 7,37)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
다.”(요한 6,35)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
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
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
다.”(요한 4,14)

그리고 우리는 성부 하느님께로 서둘러 다가
가면서 그분의 아들이신 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성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주시길 바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안 계
시는 곳이 없이 어느 곳이나 존재하시는 그분
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분
과 생생하게 살아있는 접촉을 하게 됩니다. 태
초부터 계시는 말씀(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
도는 성부 하느님과 뗄 수 없는 관계로 결합되
어 계십니다. 성부 하느님은 그분의 말씀이신
분, 곧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친교를 나
누십니다.

- 성 소프로니오스 아토스 성산 수도자(1896-
1993) 저서, ‘기도-영원한 생명의 경험’에서
발췌

교사이신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은 교사로서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현신적으로 가르치셨다. 우화와 비유, 예
화뿐 아니라 간단한 설명도 사용하셨다. 예수
님은 또한 소크라테스적인 방법도 쓰셨는데, 이
는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형성하며,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더 진전된 생각과 사
유,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를테면 루가 9,18-21에 나오는 대화는 마
태오 16,13-16과 마르코 8,27-29에도 기록되
어 있다. 이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
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하는 질문을 던지
시고, 이어서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너
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데, 베드로
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뒤에야, 주님은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
을 열어서 위대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
문이다. 그리고 물론 더 나아가서 곧 닥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진리인 주님의 수난과 십자가
에서 처형당하시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다.

주님의 이 질문은 특히 대 사순절을 보낼 때
도 여전히,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분명히 우리 마
음속에서 울려 퍼진다. 우리 각자는 이 물음에
대해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내면적으로 대답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군중을 따라가
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지하거나, 그런 주
장에 동의만 할 수는 없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
신을 위해서 이 대답과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늘 축일을 맞이하는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의 나창규 대신부님과 모든 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 바울로 사도의 중보로 충만한 은총과 풍성한 영적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6월 30일(월)
12사도 연관 축일
 - * 7월 1일(화)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 치료자들
-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코즈마스와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일본 사목 방문

지난 6월 14일~17일 일정으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도쿄를 사목 방문하여 성 알반 교회(St. Alban's church)에서 성찬예배를 드리고 일본 정교회 신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림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교인이 아닌 비정교인도 우리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니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7월 18일까지 받습니다.

-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일정: 7/25(금)-27(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7/28(월)-8/3(일): 초등학생 (참가비 18만원)
8/4(월)-6(수): 중고등학생 (참가비 6만원)

■ 춘천 성당 복지관 공사 완료

노후된 춘천 성당 복지관 건물의 지속적인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옥상의 방수 및 지붕설치 공사와 벽체 균열 보수, 옥외 계단 지붕설치 등의 공사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 시리아 다마스쿠스 정교회 성당 자살폭탄 테러

지난 6월 22일 정교회 성당에서 자행된 이슬람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52명이 다쳤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들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유가족들, 신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항상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일리아스 사부가 말했다.

“내 마음을 심판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네.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 냉엄한 심판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나를 단죄하는 판결이라네.”